

한·중·일 단오민요 고찰

조선미*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세시민요 속 세시풍속
3. 한·중·일 단오민요 속 세시풍속
 - 3.1 한국 대표 단오민요 특징
 - 3.2 중국 대표 단오민가 특징
 - 3.3 일본 대표 단오민요 특징
4. 한·중·일 단오민요 속 세시풍속 비교
5. 결론

[국문초록]

본문은 한·중·일 세시민요를 비교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중 단오민요를 대상으로 세 나라의 단오 풍속을 비교하였다.

먼저 세시민요에 내재되어 있는 세시풍속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시민요는 세시 행사에서 불리는 민요로 농경, 생활, 전통명절 풍속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중·일에서 단오는 표면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나 단오민요의 내면에는 전혀 다른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한국의 단오민요에는 단옷날 행하는 그네를 뛰며 남녀의 만남의 장을 넘어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들의 생생력을 보여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중국의 단오민요에는 종자를 먹고 용선경도를 하는 단오놀이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일본은 단오가 쇠퇴하여졌지만 남자 어린이를 위한 명절로 변모하였고, 남아의 입신양명을 비는 염원을 담고 있다.

세 나라의 단오민요를 살펴본 결과,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세시민요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중은 놀이 중심이라면 일본은 남자 어린이가 중심이 되어 정서 표출이 이루어지고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의식적인 기능도 존재한다.

주제어: 세시민요, 세시풍속, 한·중·일, 단오민요, 전승성, 제의성, 유희성

1. 들어가는 말

세시풍속은 예로부터 전해지는 농경사회의 풍속이며 해마다 농사력에 맞춰 관례로 행하여지는 전승적 행사다. 오늘날 행하여지고 있는 세시풍속은 민중에 의해 발생하고 전승되어 온 민족적 색채가 가미되어 있는 의식, 의례행사와 놀이다. 민중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나 널리 불리던 노래로서 구전되어 자연스럽게 전해져 온 노래인 민요는 부를 때 즉흥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예술로 평가된다.

민요는 민속이고 음악이고 문학이다. 민속으로써의 민요는 구비전승의 하나이고, 생업·세시풍속·놀이 등을 기능으로 하여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집단적인 행위를 통하여 불리던 기회가 많다.¹⁾ 민요의 종류에는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등이 있다. 그중 의식요는 사람의 일생에 따르는 통과 의례와 일 년 동안의 절후에 따르는 세시의례를 거행하면서 부르는 민요인데 그 하위 범주인 세시가요는 세시풍속과 관련된 가요군(歌謠群)을 지칭한다. 박준규²⁾는 세시가요의 대상을 한 해에 대한 노래, 사시절에 대한 노래, 특정 달에 대한 노래, 절일에 대한 노래 네 가지로 구분을 하였다. 세시풍속인 단오는 세시민요에서 절일에 따라 자주 등장하는 풍속으로 단오민요를 통해 단오의 세시풍습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한·중·일에서 단오는 민간전승의 중요한 명절이다. 특히 한국에서 단오는 모내기를 끝내고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로서 풍년에 대한 기원과 벽사 풍습이 많이 전해 오며, 씨름이나 그네뛰기 등 공동체의 민속 놀이도 행해진다. 중국 단오절은 단양절(端陽節)라고도 부르며 초나라(楚國) 시인 굴원(屈原)이 멍라강에 몸을 던져 죽은 날을 기념하여 생긴 기념일로 전해지고 있으며 용주경도를 전국에서 행하고 있고, 또 종자를 먹는다. 일본의 단오는 ‘단고노셋쿠(端午の節句)’라 하여 과거에는 한국과 중국처럼 음력으로 쇠었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양력 5월 5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민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5266&cid=46643&categoryId=46643>, (검색일 2023년 3월 7일)

2) 박준규, 「한국 세시가요의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3.

일로 바뀌었고 어린이날과 겹친다는 특성상 남자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날이 되었다.

오늘날처럼 지역 문화를 중요시하는 시대에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세시풍속과 가요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장정룡은 한시나 민요, 가사 등의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세시풍속과 가요를 비교 연구하여 한국의 세시풍속은 1월과 8월, 5월과 10월의 교차구조를 가지며 중국은 1월부터 11월까지 순환구조를 가진다고 했다.³⁾ 권오경은 민요의 기능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세시풍속민요를 살펴보고 한국의 세시풍속민요는 여성 중심이고 중국은 남녀 양성으로 정서 표출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 양국 모두 열두 달 형식을 취함으로써 반복적 리듬을 타고 노동과 유희의 혼합 기능이 나타나고 의식적 기능도 함께 존재한다고 하였다.⁴⁾ 이런 세시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중 단오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이면서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한국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한·중 양국의 문화적 갈등이 양국의 단오 문화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임혜정⁵⁾은 일본 민요의 전개에 있어서 한국과의 연관성을 찾고자 일본의 민요 전승 양상에 대하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보았으며 민요 보존을 위해 민요 교육과 보급, 민요 문화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민요를 전승해 나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하듯 한·중·일 세 나라의 세시풍속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많은 유사성을 가진 삼국의 단오 세시풍속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적은 편이다. 특히 삼국의 단오민요나 단오 세시풍속에 관한 독자적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본문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세시민요를 살펴보고 세시민요 중 단오민요를 다룸으로써 민요 속에 나타나는 삼국의 단오 세시풍속의 동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한자문화권에서 유래된 세시일지라도 내부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각국은 자체적으로 세시풍속을 창조하고 향유하였기에 세시민요를 통해 전승 및 변모된

3) 장정룡, 『한, 중 세시풍속 및 가요연구』, 집문당, 1998.

4) 권오경, 「한·중(韓·中) 열두 달 세시풍속민요 비교」, 『한국민요학』제32집, 한국민요학회, 2011.

5) 임혜정, 「근대 이후 일본의 민요 전승」, 『동양음악』제37집, 2015.

양상을 찾아보려고 한다. 다만, 단오를 제외한 다른 세시풍속의 민요에 관한 부분의 연구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민요의 개념이 많이 약화되었고, 자연스럽게 사라져 가고 있다. 하여 지금이라도 동아시아 중 삼국의 단오민요를 정리하여 이를 통해 단오 양상을 고찰하고 세시풍속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연구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세시민요 속에 내재된 세시풍속을 들여다봤다.

둘째, 민요가 갖는 민중성과 전승성, 기층성에서 단오라는 세시풍속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고찰하였다.

셋째, 단오날에 불리는 단오민요의 의례성, 유희성, 농경성과 단오풍속에 주목하여 한·중·일 단오민요를 비교 고찰하였다.

2. 세시민요 속 세시풍속

세시풍속은 1월에서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1년 동안의 시간 흐름에 맞춰 반복되어 온 주기전승(週期傳承)의 다양한 연례민속을 뜻한다. 정월부터 선달까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세시풍속은 주기전승의 의례적 관행이며 대체로 농경사회에서 시절성, 순환성을 가지고 진행된 농경문화의 영향 속에 탄생한 풍속이다. 세시풍속은 음력을 중심에 두고 제천의례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농경문화의 약화로 농경의례적인 성격이 많이 약화 또는 퇴색되었으나 설날, 추석 등 전통명절의 풍속은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 의례성은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보존·전승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시풍속은 다양한 기능이 있으나 세시의 비일상적 시공간에서 풍요와 건강을 비는 기복 행위로 인해 종교의례적인 성격과 신비성을 갖는다. 특정된 날, 특정된 시간에 행해지는 세시의례는 자연신, 조상신 등 다양한 신의 영험함을 믿고 기복을 하는 과정에 종교성이 드러난다. 이런 종교성은 놀이와 가무를 통해 지속해 오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세시

풍속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시놀이는 의례성과 놀이성을 함께 추구한다. 예를 들면 정월 보름에 하는 널뛰기, 단오의 그네뛰기 등은 오락적 기능을 하고 있다. 오락과 예능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세시풍속은 전통사회에서 생기를 북돋우고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였다. 하여 공동체 사회에서 세시풍속은 신명을 푸는 축제와 같은 행사로 피로와 긴장을 풀고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재충전의 효과가 있다. 이런 축제의 장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노래이고 이를 세시민요라 한다.

세시민요는 ‘세시요’라고도 하는데 연중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세시 행사에서 불리는 민요이다. 세시민요는 세시의식민요와 세시유희민요가 있다. 세시의식민요는 한 해 중 절기나 명절 등의 시기에 행하는 의식에서 부르는 민요이고 세시유희민요는 절기에 민간에서 전하여 행하는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민요다. 하지만 세시 자체의 미분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기능상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는 세시민요도 있다. 이를테면 <지신밟기노래>가 그것인데 <지신밟기>는 음력 정초에 풍물패를 선두고 양반, 소고패, 포수, 하동, 머슴과 탈을 쓴 각시 등이 집집마다의 지신을 밟으면서 노래를 하고 춤과 익살, 재주를 연희하는 것으로 가정의 안녕을 축원하고 풍작을 축원하는 민속놀이이다. 이렇게 땅을 지키는 지신을 위로하고 찬양함으로써 인생살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기원을 담아 부르는 노래가 <지신밟기노래>인데, 풍물을 치며 춤추고 노래한다는 점에서 제의적인 성격과 유희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⁶⁾ 추석날 보름달 아래서 여러 사람이 원형을 그리면서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도는 전통 민속놀이이자 중요 무형문화재 8호인 <강강술래>와 음력 정월 보름날 달 밝은 밤에 예쁘게 꾸민 여자들이 모여 허리를 굽혀 행렬을 만들고 그 위를 걸어가게 하며 부르는 노래인 <뿔다리밟기노래>도 세시에 불리던 노래로 놀이적인 성격과 의식요로서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시민요는 세시의 다면성에 기인하여 의식과 유희 기능 양쪽에 걸쳐 밀착된 구비시가군(口碑詩歌群)을 포괄하는 것이다.

세시를 소재로 하여 만든 민요는 열두 달 세시풍속을 소개하는

6) 네이버 지식백과, <세시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5986&cid=46643&categoryId=46643> (검색일 2023년 7월 15일)

노래가 다수인테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각각의 풍속을 소개한다. 열두 달을 노래한 민요에 등장하는 세시절일은 민간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다양한 세시 행사가 수반되었던 절일이고 한국의 세시절일은 농사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하여 민중의 현실생활과 생산생활의 주기에 밀착된 생활관습을 잘 보여주고 민중들의 염원을 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달 타령>은 1월부터 12월까지 주기적으로 전승되어 가장 보편성을 획득한 한민족의 명절과 절식, 그리고 놀이를 주제로 엮은 민요이다.

(약)

오월에 뜨는 저 달은 단오 그네를 뛰는 달
 유월에 뜨는 저 달은 유두밀떡 먹는 달
 칠월에 뜨는 달은 견우직녀가 만나는 달
 팔월에 뜨는 달은 강강수월래 뛰는 달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약)

-<달 타령>7)

<달 타령>은 어느 전통 민요에 비해 강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일 년 중 중요한 세시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월은 일 년의 시작을 알리는 달로 차오르는 보름달을 통해 새해의 희망과 풍요를 기원하고 있고, 5월 단옷날에 그네는 풍요와 다산과 같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남녀가 만나 사랑을 나누는 7월 칠석, 8월 추석 강강술래노래를 부르며 손에 손을 잡고 원형을 그리며 노는 풍속은 연중행사로 빠질 수 없는 세시풍속이다. 이렇게 열두 달을 소재로 한 세시민요를 통해 세시풍속과 민중의 현실 생활과 염원을 엿볼 수 있다.

세시를 소재로 하여 향유된 민요는 민요 속에 다양한 세시풍속을 내재하고 있고 민요를 통해 세시풍속을 도출할 수 있다. 세시성이 적용된 세시민요는 시기별 세시풍속을 잘 드러내고 강조하며 민요 본래의 의

7) 세계한민족문화대전, <달 타령>, <http://www.okpedia.kr/Contents> (검색일 2023년 7월 16일)

미와 세시의 의례성, 놀이성, 농경성 등이 의미확장을 통해 한층 강조된다.⁸⁾ <달 타령>도 이런 세시를 소재로 한 민요로 세시풍속이 갖는 독특한 성격을 민요에 적용하여 민요의 의미를 한 층 부각시켰다. 열두 달 세시풍속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며 각각의 세시풍속을 소개하는 세시민요는 시간성과 주기성이 민요에 적용되면서 민요의 의미가 보다 풍부해지고 주제를 심층적으로 표출한다.

세시를 소재로 한 민요는 비일상의 시공간인 세시의 현장에서 불리지 않기 때문에 세시풍속의 기능적인 면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세시민요는 세시풍속을 성격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노래를 통해 다양한 시대와 그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므로 세시민요에는 농업성, 의식성, 놀이성 등 세시성이 노래에 구현됨으로써 노래의 주제의식이 형상화되고 민요를 통해 전통세시풍속이 보존·전승되고, 그 속엔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지혜가 담겨 있다.

3. 한·중·일 단오민요 속 세시풍속

3.1 한국 대표 단오민요 특징

민요는 민중의 노래라는 뜻으로 민중의 일상적인 삶을 노래화한 것이다. 민요는 전국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부를 수 있기에 기층 집단의 민중들 속에서 저절로 자생하는 삶의 소리, 생명의 소리, 신명의 소리 바로 그것이다.⁹⁾ 김익두는 한국민요는 시대적으로 근대 이전, 지역적으로 동아시아 한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한국민족에 의해서 생성된 노래를 민요라고 했다.¹⁰⁾ 이런 민요에 세시풍속을 소재

8) 송소라, 「세시민요에 나타나는 세시풍속의 성격과 기능」, 『한국민속학회』, 한국민속학회, 2018, 70면.

9) 이창식·김의숙, 『구비문학이란 무엇인가』, 푸른 사상, 2004, 83면.

10) 김익두, 「한국민요와 한국인의 정서- 전북 동부 산간지역 민요의 경우」, 『한국민요학』제48집, 한국민요학회, 2016, 108면.

로 주기적으로 세시 행사에 부르는 노래가 세시민요이다. 세시민요에서 열두 달을 차례로 노래하는 형식의 민요를 다수 찾아볼 수 있는데 4대 전통명절의 하나였던 단오도 세시민요에 자주 등장하는 절기이다.

단오는 1년 중에서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인 음력 5월 5일로 수릿날 혹은 천중절이라 부른다. 단옷날은 예로부터 큰 명절로 여겨왔고 더운 여름을 맞이하기 전의 초하의 계절이며,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이기도 하다. 단오에는 농작물이 한창 성장할 때여서 이날 쑥떡·밀전병과 같은 절식을 마련하여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집단적인 민속행사로 마을의 수호신에게 제사 지내는 단오제가 있다. 단옷날에는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창포와 쑥을 이용하여 액을 제거하는 벽사나 그네를 뛰고 씨름을 하는 민속놀이도 행한다. 이처럼 단오의 여러 행사는 벽사 및 더위를 막는 신앙적인 관습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기풍행위가 주가 되며 씨름과 그네뛰기와 같은 민속놀이를 통한 생생력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단오제는 공동체의식을 이루는 축제이기도 하며 과중이 끝난 5월 단오에 함께 모여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음주와 가무로 밤낮을 쉬지 않고 놀고, 농경의 풍작을 기원하는 제삿날인 5월 제의 유풍으로 보기도 한다. 하여 이런 축제의 날에 노래가 빠질 수 없고, 불려진 노래가 단오민요였을 것이다.

세시민요 중 가장 오래된 세시가요로 합의가 된 <동동>에도 단오를 노래한 내용이 있다. 전편 1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달마다 당시의 세시풍속을 노래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동동>에 5월 단오를 노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

五月 五日애

아으 수릿날 아침 藥은

즈믄 헬 長存하살

藥이라 받잡노이다

아으

...(약)

-<동동>의 일부11)

<동동>의 가사는 『악학궤범』에 실려 있는데 세시풍속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동동>은 세시풍속이 달마다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만 1월은 답교(踏橋), 2월은 연등, 5월은 단오가 그 배경이다. 하여 5월 단옷날 가사에 5월 5일을 수릿날이라 부르고 '천 년을 길이 사실 약을 바친다.'라고 했고, 궁중에서 불리어진 노래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천 년을 살 수 있는 약은 제호탕과 옥추단으로 추정된다. 제호탕은 약이면서도 청량음료인데 『동국세시기』의 기록에 의하면 내의원에서 제호탕을 만들어 임금에게 진상했다고 했는데 더위를 이기고 갈증을 해소하며 보신하기 위해 주로 단옷날에 많이 마셨다고 한다. 옥추단은 단옷날에 내의원에서 만들어 임금에게 진상하면 임금은 그것을 각신에게 하사하여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고 해독을 하는 용도로 쓰였다고 한다. 이러하듯 <동동>에는 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혼자서 임을 그리며 약을 만들어 드리는 내용에 단오의 명칭뿐만 아니라 단오 음식으로 임의 장수와 안강(安康)을 바라는 임에 대한 정(情)이 담겨 있다.

세시민요 속 단오를 노래한 민요에는 <동동>처럼 열두 달 중의 한 부분으로 단오를 노래한 민요도 있지만 오로지 단오라는 세시를 소재로 노래한 민요도 있다. <단오요(端午謠)>에서는 오월 단옷날 청실홍실 묶은 그네에 임과 함께 그네 뛰는 여성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오월이라 단오날은 천중가절이 아니냐
수양청청 버들숲에 피꼬리는 노래하네
휘여녕층 버들가지 청실홍실 그네매고
임과나와 올려뛰니 떨어질까 염려로다
한번굴러 앞이숫고 두번굴러 뒷이숫아
허공중층 높이뜨니 천산녹수 얼른얼른
어찌보면 훨훨멀고 얼른보면 가까운듯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동동>,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44195&cid=46642&categoryId=46642> (검색일 2023년 7월 12일)

올라갔다 내려온양 신선선녀 하강일세
 난초같은 고은머리 금박댕기 너울너울
 외씨같은 두발길로 반공중에 노닐다니
 요문갑사 다홍치마 자락들어 꽃을매고
 초록적삼 반호창에 자색고름 너울너울

-〈단오요〉¹²⁾

고려 시대에는 그네를 추천(鞦韆)이라고 불렀고 궁중이나 상류 사회에서 놀던 것이 차츰 민간에서도 단오에 그네뛰기를 하였다. ‘청실과 홍실을 그네에 매고’ 몸을 날려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물러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단오요〉에서 노래한 것처럼 그네뛰기는 한 그네에 ‘임과 내가 울려 뛰니’ 사랑이 싹튼다. 부녀자들의 외출이 억제되었던 옛날에도 이날만은 그네를 뛰는 것이 허용되었으니, 단옷날 그네야말로 옛날 부녀자들이 일 년 내내 억눌렀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 볼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¹³⁾ 이처럼 그네뛰기는 전국 각지에서 주로 민중의, 특히 여성의 대표적인 놀이이자 남녀가 교류하는 장 혹은 지역축제 문화로 이어져 왔다.¹⁴⁾ 이렇게 남녀의 사랑의 정을 나누는 그네뛰기는 풍양과 여성의 다산 등의 생산성을 기원하는 의례적 측면을 가지는 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양기가 왕성한 단옷날 젊은 남녀가 애정을 나누고 5월에 새로운 생명의 푸르름과 재생의 축하, 남녀의 희로애락의 정을 노래한 단오놀이인 그네를 통해 여성의 생생력(生生力)을 반영하는 축제의 한마당임을 세시민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거창달거리노래>에서도 여성들의 축제의 장이 된 단옷날 그네뛰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오요>와 달리 자신들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털어놓고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하는 장인 단옷날을 노래하였다.

12) 이창식, 「강릉단오제 민요의 제의성과 유희성」, 『아시아강원민속』 제16집,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02. 137면.

13) 강오식, 「창포 물맞이와 그네뛰기, 초하의 단오풍정」, 『도시문제』 36권 391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1, 90면.

14) 오쿠마야키코, 「한국 근대 그네뛰기의 변화 양상」, 『체육사학회지』 16권 3호, 한국체육사학회, 2011, 2면.

...(약)

오월이라 단오일은 추천하자는 명절인데
녹의홍상 미녀들은 입과 서로 뛰놀건만
우런님은 어디를 갔게 추천하자는 말이 없노

...(약)

-<거창달거리노래>의 일부

오월 단옷날은 그네를 뛰는 날이지만 알록달록 임이 있는 예쁜 처자들은 신나게 그네뛰기를 하고 있지만 함께 임이 부재한 ‘나’는 임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다. 여성의 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날인 단옷날에 함께 그네를 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시적 형식을 채택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대화하며 단옷날이야말로 한 해 중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축제의 장임을 말해준다.

단오민요에는 놀이뿐만 아니라 제의적인 측면도 엿볼 수 있는데 강릉단오제에서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면서 부르는 노래인 <영산홍가(映山紅歌)>가 바로 그것이다. 강원도 강릉시 학산리에서 전승되는 의식요인 <영산홍가>는 해마다 오월 단오가 되면 수호신인 국사서낭을 모시고 5일 동안 마을곳을 벌이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행렬을 지어 대관령에서 내려오면서 주고받으며 부른다.

이야에 에헤야 에히야 얼싸 기화자자 영산홍
이야에 에헤야 에히야 얼싸 기화자자 영산홍
영산홍로 봄바람에 가지가지가 꽃피었네(기화자자 영산홍)
이야에 에헤야 에이야 얼싸 기화자자 영산홍
꽃밭일레 꽃밭일레 사월 보름날 꽃밭일레(기화자자 영산홍)
여태까지 왔다는게 이제 겨우 반쟁이나(기화자자 영산홍)
국태민안 세화연풍 서황님께 비나이다(기화자자 영산홍)
먼데 사람 듣기 좋게 힘차게 불러주소(기화자자 영산홍)
곁에 사람 보기 좋게 덩실덩실 춤을 추소(기화자자 영산홍)
구산 금산 다 지나서 여성황이 저기로세(기화자자 영산홍)

-<영산홍가>15)

<영산홍가>은 무녀나 제관이 아닌 일반 민중들이 불렀던 노래로서 사당패 등이 길을 걸어가면서 부르던 길노래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대관령에서 신목과 신위를 모시고 내려온 일행이 구산성황당에 이르러 피곤을 달라고 있는 중 성내의 사람들은 날이 어두워지는데 서낭님은 오지 않자 기다리다 못해 저마다 손에 횃불을 들고 구산으로 신을 마중 나왔던 것이다. 신의 길을 밝혀드리겠다는 마음으로 횃불을 밝히는데 그 모습이 붉은 영산홍과 같아 그때 부른 노래가 <영산홍가>이다. 신을 모셔오는 행렬이 대관령을 떠나 여서낭당에 도착하기까지 꽃이 만발한 주변 풍경과 흥에 겨워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신을 기쁘게 해 드리고자 한 것이다.

신이 오시는 길을 밝게 비추고 신을 즐겁게 하는 길놀이는 지역들의 관심을 끌어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축제로 변모하였다. 신과 인간이 함께 즐기는 단오에 <영산홍가>를 부르면서, 오신을 통해 모셔 온 대관령 국사서낭과 여서낭당의 ‘힘’을 빌어 ‘국태민안’을 이루고자 하는 일반 민중들의 바람이 민요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3.2 중국 대표 단오민가 특징

중국에서는 민요를 민가(民歌)라고 부른다. 중국민가는 『시경(詩經)』이나 『초사(楚辭)』에서 중국 고대 민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나 민요라 부르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것은 송나라 때의 역사·지리서인 『육조사적편류(六朝事跡編類)』에서였다. 그 후 속요(俗謠)·단가(短歌)·잡가(雜歌)·국풍(國風)·풍요(風謠)·동요(童謠) 등 이름으로 민요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의 민요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민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중국 민가도 역시 민간에서 형성하여 전해져 내려온 독특한 문화를 지닌 가곡이다. 민간창작의 하나로서 구두로 전해져 내려오며 당시 백성들의 사상, 감정, 의지, 요구, 염원 등을 담은 현실성에 기초한 노래이다.

중국의 단오절은 음력 5월 5일에 있는 중국의 전통명절이다. 또 오

15) 디지털강릉문화대전, <영산홍가>, <http://www.grandculture.net/gangneung/toc/GC00302577> (검색일 2023년 7월 17일)

(五)가 겹친 날이어서 중오절(重五節)이라고도 하고, 양수가 겹친 날 중 가장 햇볕이 강한 날이라 하여 단양절(端陽節)이라고도 한다. 중국 단오절의 유래설화 중 제일 유력한 것이 굴원설화이다. 굴원이 멍라수에 투신하여 죽은 날이 음력 5월 5일 단오날인데 중국에서는 이날을 문학의 날로 기린다. 특히 단오날에 댓잎에 싸서 먹는 종자(粽子)는 굴원을 기리기 위한 음식으로 유래되었는데 종자를 강물에 던져 물고기들이 굴원의 시신을 뜯어먹지 못하게 했다는 풍속이 전해진다. 또한, 중국에서 행해지는 용선(龍船) 경주 시합도 강물에 빠진 굴원의 시신을 빨리 건져내기 위한 것에서 유래한다. 이외에 단오절에 옹황주나 창포주를 마시고, 두백초나 담백초하는 풍속들도 있다.

중국민가에도 세시풍속을 노래한 세시민가가 있다. 한국의 세시민요와 마찬가지로 세시민가 속에 세시풍속이 내재되어 있고 세시의 놀의성, 제의성, 농경성 등을 드러내고 있다. 세시풍속 그 자체를 소재로 하여 노래함으로써 세시풍속에 대한 기억을 용이하게 하는데 <십이월가(十二月歌)>가 그것이다.

- | | |
|---------|-----------------------|
| 一月鑼鼓喧天響 | 1월은 징과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
| 二月燕舞堂前椿 | 2월은 처마 밑 제비가 돌아온다. |
| 三月桃花直撲面 | 3월은 복숭아꽃이 향기가 파고든다. |
| 四月禾苗栽滿田 | 4월은 벼모로 논밭을 채운다. |
| 五月祭祀划龍舟 | 5월은 제사를 지내고 용주를 짓는다. |
| 六月暴雨河牀滿 | 6월은 폭우가 쏟아져 강이 가득 찬다. |
| 七月酷暑最難消 | 7월은 더위가 가시기 가장 어렵네. |
| 八月秋風漸回涼 | 8월에 가을바람이 점차 선선해진다. |
| 九月糧食堆滿倉 | 9월에 식량이 창고를 채운다. |
| 十月霜凍葉葉黃 | 10월에 서리가 내리고 잎이 노래진다. |
| 冬月寒流頻襲擊 | 겨울 한파가 빈발하고 |
| 臘月遊子返故鄉 | 선달 나그네가 고향으로 돌아온다. |
| 返故鄉…… | 고향으로 돌아온다. |

-<십이월가>16)

16) 중국시가, <십이월가>, <https://www.zgshige.com/c/2018-07-12/6632582>.

<십이월가(十二月歌)>에서는 3월에는 복숭아꽃이 피고, 4월에는 벚꽃 재배가 끝이 나고, 6월은 장마철이며 9월은 풍년이 들어 식량창고가 가득 채워진다고 한다. 다른 열두 달을 노래한 세시민가처럼 새해, 청명, 유두절, 중추절 등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유독 단옷날 행하는 제의와 용선경기는 거론이 되었다. 5월에 지내는 제의는 초나라 시인 굴원이 멍라강에 몸을 던져 죽자 그를 기리기 위해 지내는 굴원제를 뜻하고, 단오절 놀이인 용주경도는 굴원의 넋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열두 달의 노래라 하고 유독 5월에만 세시풍속을 노래한 <십이월가>를 통해 중국 단오절과 그 세시풍속은 전통명절에서의 위치가 대단히 큼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단오절에는 용선경도를 하는 것 외에 종자를 먹는다. 종자는 굴원의 시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멍라강에 대나무잎에 찹쌀을 싸 던지던 풍습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러한 중국 단오절의 풍습들도 단오민가에 드러나고 있는데 <절강성 단오민가>, <운주시 단요민가>, <방양(放羊)>, <오색선(五色線)> 등이 그것이다.

五月五日 是龍舟,	오월 오일 용선경도,
龍舟鼓聲 水面游,	용선이 북 울림과 함께 물을 가르면서 질주하네.
大男細女 睇龍舟,	훈남미녀가 용선놀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龍舟扒去 又扒反。	용선이 선두를 겨루며 끊임없이 잘 달리네.

-<절강성 단오민가>¹⁷⁾

<절강성 단오민가>에는 중국 단옷날 대표적인 놀이인 용선경도를 하는 모습을 생동감 넘치게 담았다. 용선경도 시작되면 선두에서는 북을 치고 흥을 돋운다. 용선경도가 시작되면 용선들은 앞다투어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고 경기를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강둑에 모여든다. 경기에 참여한 남성들은 배를 저으며 경기에 최선을 다하기도 하지만 이

shtml (검색일 2023년 7월 18일)

17) 장정룡, 「한·중 세시풍속 및 가요의 비교」, 『언어연구』제16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88, 187면.

기회를 통해 강둑에 구경나온 여성들에게 남성미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용선경도는 남녀의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한다. 이는 한국에서 단옷날 그네뛰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생생력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데 용선놀이 에 눈을 떴지 못하는 훈남미녀는 이런 만남의 장을 통해 풍요와 다산의 생생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점을 더욱 잘 보여주는 세시민가가 <방양>이다.

五月裏放羊五端陽	양을 방목하는 오월은 단옷날이요.
花鼓龍船鬧長江	화고와 용선이 장강에서 떠들썩하네.
郎站船頭姑站尾	남은 뱃머리, 나는 선미(船尾)에 서,
二人成雙又成對	둘은 한 짝과 한 쌍이 되었네.

-<방양>18)

단옷날 용선으로 장강을 가득 채우고 용선위에서는 북을 치며 흥을 돋운다. ‘임’은 뱃머리에 서서 경기 준비를 하고 있고, ‘나’는 선미에서 ‘임’을 위해 힘을 보탠다. 이렇게 ‘임’과 ‘나’는 한 쌍과 한 짝이 되어 정을 나누고 용주경도를 통해 만남을 이룬다.

춘추전국시대부터 존재한 용주경도는 매년 단오를 기점으로 중국 전역에서 즐기는 놀이인데 특히 수계(水系)가 발달한 장강 유역과 동남연해 지역에서 많이 거행하고 있다.¹⁹⁾ 4월에 날짜를 택하여 물로 내려가 북을 울리고 뱃노래를 부르며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는 단오까지 이어진다. 역신을 보내기 위한 제액 의식이 전국시대에는 굴원을 기리기 위한 행사와 용주경도가 결합이 되면서 그 문화적인 요소가 더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남녀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도 변모하게 되었다. <운주시 단오민가>에서도 단옷날 굴원을 기념하고 용주경도를 하는 풍속을 볼 수 있는데 <방양>에 없는 창포주를 마시는 등 단오풍습들도 찾아볼 수 있다.

18) 『중국민간가곡집성』 전국편찬위원회, <방양(放羊)>, 『중국민간가곡집성』 섬서 권 (하), 중앙민족대학출판사, 1994, 673면.

19) 중국 북부지방에서도 용주경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큰 강 또는 호수를 끼고 있는 도시에서만 하고 규모가 크지 않으며, 지역민들이 즐기는 단오절 행사로 진행될 뿐이다.

五月五日端午了, 오월 오일은 단오요,
 屈原飲恨汨羅江, 굴원이 한을 품고 떡라수에 몸을 던졌으니,
 龍舟隊隊江中飛, 무리무리 용주가 강중에서 날고 있고,
 要飲蒲酒保平安. 창포주를 마시어 평안을 기원하고 있다.
 -<온주시 단오민가>²⁰⁾

5월 5일 단오절에 굴원이 한을 품고 떡라강에 뛰어들어 자결하였다. 그를 구하려는 용주들이 무리를 지어 강에서 오르고 내리는 모습을 묘사한 <온주시 단오민가>에서는 단오절의 유래와 단오절 놀이인 용주경도의 모습을 담았다. ‘용주가 강중에서 날고 있다’라는 구절은 당시의 용주경도의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 <온주시 단오민가>에서는 단오절에 창포주를 마시어 가족의 평안을 기복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창포에는 재액의 힘이 있다고 믿는 단오절 풍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용주경도는 굴원의 시신을 찾기 위해 행해졌던 것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용주경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서한 『월절서(越絕書)』에 있다고 한다.²¹⁾ 월왕 구천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배를 만들어 10년을 하루와 같이 수군(水軍)을 지휘하여 기원전 473년에 나라를 되찾았다는 설화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월왕구천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용맹함을 기념하기 위해 용선을 만들었고 그 뒤로 경도를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구천기념설보다 굴원을 기리기 위한 세시풍습으로 여기고 있으며 굴원기념설이 독보적인 단오기원설로 되었다. <경장성 단오민가>, <온주시 단오민가>에서처럼 단오 풍속을 담은 다수의 민가에는 단오절의 유래인 굴원설을 내재하고 있다. 또 단옷날 빠질 수

20) 문비방(文秘幫), 「용주교의 기원과 제작」, <https://www.wenmi.com/article/pyha8s03m82s.html> (검색일 2023년 7월 10일)

21) 『월절서(越絕書)』:“競渡起自越王勾踐”。這是迄今方誌上最早的龍舟競渡的記載，點明瞭龍舟競渡起源於勾踐，和爲了紀念祈求平安的涵義。據西漢《越絕書》等史籍記載：春秋時，越國君主被吳王夫差釋放歸來後，爲謀求復國，十年臥薪嚐膽，根據越國水鄉澤國的特點，十分注重舟船的建造，所造舟船狹長，槳位衆多，快速如飛。每年端陽，勾踐坐龍船，親自指揮競渡，實乃操練水軍，“戈船三百”，聲勢赫赫。經過十年艱辛，終於在公元前473年，實現了復國 (출처: 바이두)

없는 놀이인 용주경도가 등장하는데, 무리무리 용주가 경도를 하는 모습을 생동감 있고 더 풍성하게 만들었고 창포주를 마셔 액을 제거하고 평안을 기원하는 중국 단오절의 세시풍속들도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용주경도가 단오절의 지역축제로 되었으며 중국전통을 유지 계승하는 측면에서 용주경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호북성, 호남성, 강소성의 4개 지역에서는 용주경도 행사에 참가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하듯 중국 대표적인 세시민요인 단오민요에는 복을 치고 물결을 날리며 경기하는 단오 풍속인 용주경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제액과 남녀 간의 애정을 통한 풍요와 다산, 생산을 촉진하며(生産促進) 민족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등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에도 중국 단오절에는 제액과 굴원 추모, 종자 먹기와 용주경도가 대표적인 민속활동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3.3 일본 대표 단오민요 특징

일본의 전통사회에서 일반 민중들은 노동과 함께 노래를 불렀고 연중행사나 개인의 인생의례, 오락의 장에서도 노래를 불렀다. 이런 노래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민요라고 부른다. 일본에서 ‘민요’라는 용어는 근대 이후 한국에 도입되어 한국에서는 ‘민요’라는 일본어를 수용하였으며, 그 시점이 1920년대로 보는 견해가 있다.²²⁾ 즉 일본의 민요가 정착해 나가는 과정은 한국과 유사한 면이 많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비록 그 의미가 모호하여 발전과 전승 과정에서 점차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구전되는 노래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으나 전통사회에서 일반 민중들에 의해 불리던 민요는 근대화를 맞이하고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사회나 문화 환경이 변했음에도 여전히 전승되고 있다.

일본 민요는 민속음악이라 부르고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주로 노동 음악, 종교 음악, 연중행사 노래, 어린이 노래 등 4가지로 분류

22) 임경화, 『근대 한국과 일본의 민요 창출』, 소명출판, 2005, 164-66면.

할 수 있다. 노동요는 말 그대로 일을 할 때 부르는 민요를 뜻하는데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육체적 고통과 지루함을 달랠으로써 일의 능률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다. 농경사회인 일본도 한국, 중국과 마찬가지로 집단으로 행하여지는 공동체 작업에서 보다 능률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모내기나 배 저을 때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 또 일본의 종교문화 및 종교 생활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존했고 종교 생활은 신앙이 아닌 생활관습으로 여겼다. 신토²³⁾, 불교, 기독교를 비롯한 주요 종교들은 모두 신도 의식을 행할 때의 음악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의 전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본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교 음악인 ‘가구라’²⁴⁾나 신토의 ‘사토 가구라’²⁵⁾, 불교의 ‘본 오도리(盆踊り)’²⁶⁾가 그것이다. 파티나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관혼상제 때에 부르는 노래가 연중행사 민요인데 민속적인 것과 불교적인 것이 많아 한국과 비슷하다. 설날을 예로 들면 조상들에게 제례를 올리는 것으로 조상신을 받드는 것이 중요시된다. 또 9월 오즈키미(お月見)라고 하는 달맞이 행사는 달을 감상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8월 보

23) 신도라는 용어는 『일본서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종교의식이나 신, 신들을 모시는 장소인 신사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었다. 현재는 일본 고유의 애니미즘 신앙을 가리킨다.

24) 가구라(神樂)는 일본 고유의 신앙인 신토에서 볼 수 있는 무악을 말한다. 신사의 제례 등에서 주로 향연되며 불교 사찰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현재 약 90수의 가구라우타(神樂歌)가 존재하고 있다. 가구라는 궁중의 미카구라(御神樂)와, 민간의 사토가구라(里神樂)로 나뉘고 몇몇 신사에서는 최근에 만들어진 가구라도 상연되고 있다. 무당이 사람들의 부정한 것을 없애고 신과 사람을 매개하며 시노가 사람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으로서 벌어지는 춤과 노래가 그것이다.

25) 사토가구라는 궁중악인 미카구라에 대비되어 쓰이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일본 간토지방의 민간 가구라를 가리킨다. 사토가구라에는 무녀가 추는 미코가구라(巫女神樂), 신사의 신이 새로 옮겨갈 어좌를 청결히 하기 위한 의식인 도리모노마이와 일본 신화나 신사가 세워지게 된 연기설화를 극화한 가미노로 이루어진 도리모노카구라(採物神樂) 등이 있다.

26) 본 오도리는 원래 선조에 대해 춤을 추는 형식으로 공양을 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각 지역에서 여름에 볼 수 있는 풍경으로 일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벤트의 하나가 되었다. 백중 기간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 춤을 추는 춤의 일종으로 백중맞이 춤이라고 한다. 춤을 추며 음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노래는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오면서 점차 마을의 젊은 남녀가 모여 구애나 주술을 행하던 풍습인 우타가키 등과 결부되었다. (출처: 위키백과)

름날을 가리킨다. 이는 한국에서의 추석, 중국의 중추절과 같은 시기이며 헤이안 시대에 중국에서 전해진 것으로 달이 차고 기우는 것으로 농사작업 시기를 알고 늦게까지 농사작업이 가능한 것도 달빛 덕분이라고 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그 뿌리에 있다.

一さぎ うさぎ 何見て 토끼야 토끼야 무엇을 보느냐
 はねる 十五夜おつきさまみて 뛰고 뛰다 15일 밤에 만나자.
 一は一ねーる 폴짝
 -토끼의 노래(うさぎの歌)²⁷⁾

<토끼의 노래>는 달에 살고 있는 토끼가 떡을 찌고 있다고 전해져 만들어진 민요인데 이것은 인도 신화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달의 표면에 검은 부분이 토끼가 떡을 찌고 있는 모습과 닮았다고 하여 음력 대보름이나 8월 15일에 <토끼의 노래>를 부르면서 달을 감상한다. 이렇게 연중행사를 노래한 민요에도 세시풍습을 내재하고 있는데 전통명절이었던 단옷날 세시풍속을 소재로 한 민요에도 일본의 세시풍습들을 엿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오월 단옷날 궁중에서는 연회를 베풀고 영곡(郢曲, えいきょく)²⁸⁾을 불렀는데 요즘은 ‘오절간영곡(五節間郢曲)’으로 불리기도 한다.²⁹⁾ 현재 일본에서 단옷날에 부르는 영곡에는 동요가 대다수이고 주로 <고이노보리동요>, <쇼우부우치(菖蒲打)>³⁰⁾, <키 재보기(背くらべ)>등이 있다. 동요는 아동들의 생활이나 심리 등을 표현한 동시(童

27) 일본유학, 「일본의 연중행사」, https://www.jikei.asia/com/kr/schoollife/event_otukimi.html (검색일 2023년 7월 24일)
 28) 영곡(郢曲, えいきょく)은 낭영(朗詠), 신악가(神樂歌), 풍속가(風俗歌)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중국 춘추 시대 초나라의 서율이던 영(郢, 지금의 중국 호북성 형주시 지역)의 악곡이다. 오절(五節)이라고 불리는 인일(人日, 1월 7일), 상사(上巳, 3월 3일), 단오(端午, 5월 5일), 칠석(七夕, 7월 7일), 중양(重陽, 9월 9일)에 궁중에서 연회 때 불렀다.
 29) 橋本曜子, 「郢曲」, 『日本大百科全書』, 小学館編, 2004.
 30) 쇼우부우치(菖蒲打): 쇼우부우치는 창포의 잎을 묶어서 만든 막대기를 땅에 칠 때 나는 소리의 크기와 견고함으로 승패를 가리는 놀이다.
 노성환, 「일본의 단오민속-어린이날과 단오-」, 『동북아문화연구』제11집, 동아시아문화학회, 2006, 216면.

詩)인데 아동들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이다. 일본의 단오민요의 다수가 아이들을 위한 동요라는 점에서 일본 단오는 아이들의 명절로 변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이노보리동요>에는 일본 단오 풍속인 고이노보리 세우기 풍습이 담겨 있다.

屋根より高い鯉のぼり	지붕보다 높은 고이노보리.
大きいまごいは お父さん	크고 검은 잉어는 아빠 잉어.
小さいひごいは 子供たち	작고 푸른 잉어는 아이들 잉어.
面白いように 泳いでる	재미있다는 듯 헤엄치고 있네.

-<고이노보리동요>31)

일본 단오의 가장 상징적인 대표물인 고이노보리, 즉 잉어깃발은 『일본세시기(日本歳時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당시 깃발의 모양이 뚜렷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동요에서는 고이노보리의 크기, 색깔, 수량 등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고 바람에 날리어 나부끼는 모습까지 ‘헤엄치고 있다’라고 생동하게 묘사되어 있다. <고이노보리동요>에서는 단옷날에는 등용문에서 유래된 남자아이의 건강과 입신양명을 빌기 위해 고이노보리를 거는 단오 풍속을 엿볼 수 있다.

柱の傷は 一昨年の	기둥에 낸 상처는 작년 것이요.
五月五日の 背比べ	5월 5일 어린이의 키 재는 날
ちまき 食べ食べ 兄さんが	치마키를 먹고 먹는 형이
量ってくれた 背の丈	길이를 재준 등의 길이
昨日 比べりゃ 何 お事	어제와 비교해 봤더니 무슨 일
やっ と 羽織の 紐の丈	겨우 짧은 겹옷의 끈만큼의 길이.

(약)

-<키 재보기 동요>32)

31) 이상인 사이버 서재, <고이노보리 (鯉のぼり) 동요>, 작사:近藤宮子(こんどう みやこ), 작곡: 불명, <https://blog.naver.com/meaculpa3/140107905112> (검색일 2023년 3월 18일)

32) Uta-Net, 「背くらべ」, 작사:海野厚, 작곡: 中山晋平 발간일: 2006; <https://www.uta-net.com/song/13895> (검색일 2023년 5월 23일)

<키 재보기 동요>에서는 5월 5일은 치마키를 먹고 어린이의 키를 재는 날이라 한다. ‘치마키를 먹던 형’이 나오는데 ‘형’이라 함은 남자아이들 간의 지칭으로서 형이 남동생에게 키를 재주고 어제보다 더 크기를 담은 이 노래에도 역시 남자아이들이 건강하게 쑥쑥 크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일본이 단오민요 속에는 아이의 건강과 임신양명을 바라는 어른들의 염원을 담았다.

이 밖에 중국의 단오 풍속이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 궁중에서도 이를 모방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렸고 창포가 악(惡)을 막아준다고 믿었기에 단옷날 창포로 머리 장식을 해야 궁중 출입이 가능했으며 궁중의 치마 밑에 창포를 매다는 등 풍습이 있다. 이런 고대 일본인의 단오절 모습과 풍습은 『만요슈』³³⁾ 속 노래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전략> 두견새 날아와 우는 오월에는 창포와 함께 감귤 꽃을 하나로 약옥에 꿰어 (ほととぎす鳴く5月には菖蒲(あやめ)ぐさ花たちばなを玉に貫き) <후략>³⁴⁾

여기서 ‘약옥’이란 향료를 비단주머니에 넣어 구슬처럼 둥글게 만든 것으로 오색실로 수를 놓고, 창포나 감귤 꽃을 꿰었으며 오색실을 길게 늘어뜨려 장식한 것이다. 이는 중국 『형초세시기』에 문에 쑥으로 만든 인형을 걸어놓는 풍습과 비슷하므로 그것의 변형으로 추측된다. 또한, 『만요슈』에는 약초채집 행사를 노래한 가사가 있는데 “체비붓꽃을 옷에 물들이고는 대장부들이 차려입고 사냥하는 달이 돌아왔구나.”이다. 고대 일본의 왕실에서는 천황을 비롯한 조정 신하들이 각기 직위에 맞게 복식을 통일하고 한껏 모양을 내고는 들에 나가 약초는 물론 염료, 녹용 등을 채취하였다. 1년을 열두 달의 세시풍속과 경물을 노래하는

33)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가집(歌集)으로 『만요슈』라고도 한다. 이 가집은 문학적으로도 높이 평가되며, 일본사상사(日本思想史) 및 생활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남아 있다. 그 성립 시기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설(說)이 있어 확실하지 않으나, 대체로 630년대부터 760년대까지 약 130년간에 걸쳐 가장 많은 작품을 만들었으며, 이 시기를 만요슈 시대로 본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만요슈」)

34) 구정호, 위의 책, 147면.

<십이월왕래(十二月往來)>에서도 왕실에서 행하는 창포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약)

五月(の)あやめ草 玉の御ほうでむをふきかざる5월의 창포, 궁전의 지붕을 장식한다.

皐月乃菖蒲草 大御殿に葺きたり 5월 창포 대궐지붕에 얹혀 있다.

五月のあやめ草 玉の御殿をふきかざる 5월의 창포 궁전의 지붕을 장식한다.

五月のあやめ草。玉の御殿をふきかざる 5월의 창포 궁전의 지붕을 장식한다.

...(약)

-<십이월왕래>³⁵⁾

『만요슈』에서도 ‘아야메(あやめ)’가 나오는데 이것은 보통 창포탕에 넣는 토란과의 수초 즉 창포인데 ‘아야메구사’라 불렸고 나중에 ‘쇼우부’라 부르게 되었다. 오월에는 창포로 궁중의 지붕을 장식하는 것은 창포의 향기가 화재를 막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하듯 5월 5일에 지내는 남자아이들의 명절로 남자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무구와 무사인형 등을 장식하고, 치마키와 가시와모치를 먹고 창포로 칼을 만들며 잉어 모양의 고이노보리를 높게 세워 바람에 나부끼게 하는 일본 단오 풍속은 동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황하의 급류를 거슬러 올라간 잉어가 용이 되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고이노보리만 보더라도 일본의 단오민요에는 남아의 건강과 입신양명을 비는 어른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4. 한·중·일 단오민요 비교

열두 달을 노래한 시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월령체가’, ‘달거리’, ‘세 시가요’ 등이 있다. 월령체는 달의 순서에 따라 한 해 동안의 기후 변

35) 강산선일랑, 「高麗俗樂 <動動>의 신고찰 : 日本의 <翁>舞 <十二月往來>와의 비교적 시점에서」, 『어문논집』, 민족어문학회, 2004, 151면.

화나 의식 및 행사 따위를 읊은 노래이고 달거리는 정월부터 12월까지 달을 노래한 월순 구성으로 된 정을 담은 일군의 시가를 말한다. 세시가요는 박준규와 장정룡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세시절을 노래한 작품을 의미한다.³⁶⁾ 한국에 <단오요>를 포함한 단오민요에는 한국 세시풍속 중 단오놀이인 그네뛰기와 같은 단오놀이 모습을 담은 노래가 다수이다. 특히 자주 언급되는 그네뛰기는 여성의 다산과 생산성을 기원하는 의례적 측면을 가지는 놀이였다. 또한 '악'을 물리치고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행하는 단오절의 대표적인 여성 놀이며, 남녀가 교류하는 장이며, 여성의 생생력을 반영하는 축제의 한마당이다. 또 한국의 단오민요에는 놀이뿐만 아니라 제의적인 측면도 엿볼 수 있는데 산신을 맞이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통해 제의적인 풍습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기복 행위도 엿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단옷날 장식물인 향낭과 오색선과 단오 음식인 쑥과 웅황주의 효능을 담은 노래도 있지만 <절강성 단오민가>나 <온주시 단오민가>처럼 중국 단오놀이인 용주경도를 담은 노래가 다수이다. 용선경도는 중국 단오절의 상징적인 놀이로서 제액, 기우, 구사(求嗣) 뿐 아니라 현재는 굴원을 기리기 위한 놀이로 발전하였으며 현실적으로 배필을 찾고, 생산을 촉진하며 감정을 교류하는 축제의 장으로 되었다. 용주경도를 구경하며 남녀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었음을 보여주는 세시민요도 있는데 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단옷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세시풍속임을 나타낸다.

일본의 <고이노보리 동요>나 <쇼우부우치(菖蒲打)>에서처럼 일본 단오민요는 대부분 동요이다. 일본의 단오민요는 남자아이들의 출세와 건강을 바라는 어른들의 소망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또 중국 단오의 풍습을 받아들여 궁중에서 창포를 사용한 제액과 건강을 비는 의례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 이옥희, 「열두 달을 노래한 민요의 연행 맥락과 시간 의식」, 『한국민요학』 제30권, 한국민요학회, 2010, 297면.

<표1, 한·중·일 단오민요>

나라	단오민요	내용
한국	단오요	단옷날 그네 뛰는 모습을 생동하게 담은 노래이다.
	휘여능청 ³⁷⁾	단옷날 그네 뛰는 모습을 담은 남도민요이다.
	각설이타령 ³⁸⁾	예산민요로서 단옷날에 그네뛰기를 노래한 민요이다.
	단오 ³⁹⁾	단옷날 그네뛰기를 담은 동요이다. (2011년 창작국악동요제-원두막)
	그네뛰기 ⁴⁰⁾	단오빔을 차려입고 예쁘게 치장한 아녀자들이 하늘 위로 솟아 그네를 뛰는 모습을 담고 있다. (전래동요)
중국	절강성 단오민가	오 월 오 일 용주경도를 하는 모습을 생동하게 그린 민가이다.
	온주시 단오민가	굴원을 기념하기 위해 용주경도를 하고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창포주를 마신다는 내용을 담은 민가이다.
	방양(放羊)	용주경도와 남녀 사랑 이야기를 담은 민가이다.
	오색선 ⁴¹⁾	오색선을 걸고 평안과 오복의 염원을 노래한 민가이다.
	십이월가	해남(海南), 복건(福建), 단둥(丹東)등 지역 자연과 세시풍속을 노래한 민가.
	방양조(放羊調) ⁴²⁾	양을 방목하는 오 월 오 일에 창포주를 마시는 내용을 담은 노래이다.
일본	고이노보리 동요	고이노보리의 생동감을 담은 노래이다.
	쇼우부우치	어린이들의 창포놀이를 담은 노래이다.
	키 재보기	남아의 성장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이다.
	십이월왕래	궁중에서 처마에 창포를 메다는 풍습을 담은 노래이다. (5월 부분)

37) 김미숙, 『해설남도민요』, 민속원, 2009.

판소리 춘향가에서 이도령이 광한루에서 그네 뛰는 춘향을 보고 황홀해 하는 장면을 따다가 만든 노래이다.

38) 임동권, <각설이타령>, 『한국민요집』Ⅱ, 집문당, 1980, 605-606면.

5. 결론

세시풍속은 예로부터 전해지는 농경사회의 풍속이며 사람들의 삶의 기층에 깔려있는 자연적이고 순환적으로 발생한 행위이다. 세계 각 나라는 처한 풍토환경이 다르기에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 지리적인 영향하에 다양한 문화요소가 세시풍속을 통해 반영되고 있고 역사적 기록이나 민간전승을 통해 보존·전승되어왔다.

노래는 반복되는 원시 제례의 행위 속에서 집단적 노동현장과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 리듬과 반복적인 매체가 필요했다. 하여 집단적이면서 그 나름대로 자유로운 운율을 가진 고대 가요는 문자가 없던 시절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다.⁴³⁾ 세시민요는 세시민속의 의식과 놀이에 부합하여 연행된 구비전승 민요인데 세시의 다면성에 기인하여 의식과 놀이 기능 등을 포괄한다. 세시민요는 주로 노래의 의례성과 놀이성에 주목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기에 세시풍속의 성격과 기능을 의미 있게 분석되기는 어려우나 당시의 세시풍속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의 단오민요에는 단옷날 행하는 전통놀이, 절식, 장식, 신격 등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네를 뛰며 남녀의 만남의 장을 넘어 ‘임’을 그리

오자한장을 들고 보니, 오월이라 단오날은 연중지 가절이라, 녹의홍상 아이들은, 오락가락 노닐면서 추천장을 보는구나

39) 단오, 작사:우덕상, 작곡:우덕상

창포물에 머리감고 곱게 단장한 춘향아씨 단오 물맞이 떠나간다.

5월이라 단오날에 단오부채 얼굴가려 훑쳐보는 이도령

나비같이 훨훨 그네타는 춘향이를 훑쳐보네.

5월이라 단오날은 선남선녀 만나는 날 춘향이와 이도령이 첫눈에 반한 날.

40) 전래동요 <그네뛰기>, 노래: 동요 친구들(2014발행)

41) 오색선(五色線) 산서 포현(山西蒲縣)민가

五色線,戴脖子上,一年到頭保安康。五色線,樣樣全,五福臨門保平安。(오색선을 목에 걸고 일년 365일 평안을 지킨다.오색선 갖가지 가추니, 오복과 평안이 깃드네.)

42) 운남상운현(雲南祥雲縣)의 <방양조>

五月放羊是端陽, 菖蒲藥酒配雄黃, 主人吃得熏熏醉, 放羊之人不得嘗 (양을 방목하는 오월은 단오요, 창포주에 옹황주를 배합하여, 주인장은 알뜰뜰하게 취하였으나 양치기꾼은 맛을 볼 수 없구나.)

43) 구정호, 『만요수-고대일본을 읽는 백과사전』, 살림출판사, 1989, 86면.

위하는 여성들의 생생력을 보여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중국의 단오민요에도 남녀가 만날 수 있는 장, 전통놀이, 절식, 금기, 신격 등을 찾아볼 수 있으나 종자를 먹고 용선경도를 하는 단오놀이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런 세시놀이를 담은 노래를 세시유희요라고 하는데 한·중·일의 단오는 궁극적으로 재미와 흥취, 신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복이나 제의하는 면이 약화하고 놀이 자체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측면이 돋보인다.

한국의 단오민요에서 나타난 그네뛰기, 중국 단오 민가에서 나타난 용주경도는 민중들이 다 함께 즐기는 단옷날의 축제로 변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네뛰기놀이를 주로 담은 한국의 단오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 남녀노소 함께 즐기고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생명의 푸르름과 재생의 축하, 남녀의 희로애락의 정을 보여주며 여성의 생생력(生生力)을 반영하였다. 중국의 단오놀이인 용주경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의적인 면이 다소 약화되고 순위를 다투는 스틸감과 남성미를 뽐낼 수 있는 장으로 청춘남녀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는 축제의 모습이 돋보인다. 반면 일본의 단오민요를 보면 창포 관련 단오풍습들은 엿볼 수 있으나 역사의 흐름 속에 단오라는 명절이 약화되면서 점차 남자아이만을 위한 명절로 변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여 일본의 단오민요 속에는 아이의 건강과 입신양명을 바라는 어른들의 염원과 바람이 담겨 있다.

또 한·중·일 모두 어린이를 위한 단오 동요가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재에 삼국의 단오는 어린이들까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변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 삼국은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단오를 전통 민족적 유산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일본은 어린이날 행사에서만 단오의 풍습을 엿볼 수 있다. 단오를 포함한 세시민요 비교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더 많은 자료를 대상으로 지역별, 시대별로 더 자세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세시풍속의 변천 속에서 문화적 변화를 밝힐 수 있고 동아시아권에 속하는 국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A Study on Dano Folk Songs in Korea, China and Japan

ZHAO XIANMEI

The text aims to compare and examine the seasonal folk songs of South Korea, China, and Japan, with a focus on the "Dan-o" folk songs. Initially, the inherent seasonal customs within these folk songs were explored. Seasonal folk songs are melodies sung during seasonal event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agriculture, daily life, and traditional holidays. While the Dan-o festival appears superficially common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he inner content of Dan-o folk songs reveals distinct themes in each country.

In Korean Dan-o folk songs, the emphasis lies on vividly portraying women's emotions, expressed through activities like swinging on a swing during the Dan-o clothing ritual, extending beyond the meeting place of men and women, and yearning for love ('Im'). Chinese Dan-o folk songs focus on activities related to Dan-o games, such as eating seeds and performing dragon boat races. In Japan, Dan-o has transformed into a festival for male children after declining in significance, carrying aspirations for the growth and success of the boys.

The examination of Dan-o folk songs from the three countries reveals their common function as seasonal folk songs wishing for health and peace. While South Korea and China center around playfulness, Japan places emphasis on expressing emotions

through male children and incorporates a deliberate function to wish for well-being throughout the year.

Key words : Sesimin song, Sesimin style, Korea, China, Japan, Danoin song, transmissibility, ritual, playability

[참고문헌]

■ 단행본

- 임동권, 『한국민요집』Ⅱ, 집문당, 1980.
구정호, 『만요수-고대일본을 읽는 백과사전』, 살림출판사, 1989.
김미숙, 『해설남도민요』, 민속원, 2009.
유기동 역주, 『월절서(越絶書)』, 중국 귀주인민출판사, 1996.
장정룡 외, 『아시아의 단오민속-한국·중국·일본-』, 국학자료원, 2002.
장정룡, 『강릉단오제』, 집문당, 2003.

■ 논문

- 장정룡, 「한·중 세시풍속 및 가요의 비교」, 『언어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88.
황달기, 『일본의 사회와 교환』, 아세아문화사, 1992.
강산선일랑, 「高麗俗樂 <動動>의 신고찰 : 日本의 <翁>舞 <十二月往來>와의 비교적 시점에서」, 『어문논집』, 민족어문학회, 2004.
강오식, 「창포 물맞이와 그네뛰기, 초하의 단오 풍정」, 『도시문제』제36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1.
橋本曜子, 「郢曲」, 『日本大百科全書』, 小学館編, 2004.
권오경, 「한·중(韓·中) 열두 달 세시풍속민요 비교」, 『한국민요학』제32집, 한국민요학회, 2011.
김선풍, 「강릉학과 강릉민속문화의 발전」, 『인문학연구』제4집, 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김익두, 「한국민요와 한국인의 정서-전북 동부 산간지역 민요의 경우-」, 『한국민요학』제48집, 한국민요학회, 2016.
노성환, 「일본의 단오민속-어린이날과 단오」, 『동북아문화연구』제11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6.
박준규, 「한국 세시가요의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송소라, 「세시민요에 나타나는 세시풍속의 성격과 기능」, 『한국민속학회』제68집, 한국민속학회, 2018.
오쿠마야키코, 「한국 근대 그네뛰기의 변화 양상」, 『체육사학회지』제16권, 한국체육사학회, 2011.
위균, 「한·중 단오 풍속문화 비교연구」, 『철학과 문화』제22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문화연구소, 2011.
유옥희, 「하이쿠에 나타난 단오(端午) 수용 양상- 한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일본어문

- 학』제84집, 한국일본어문학회, 2020.
- 이창식, 「한국 단오제의 지역별 현황과 정체성」, 『남도민속연구』제25집, 남도민속학회, 2012.
- 이창식, 「세시가요의 구조와 의미 : 民俗遊戯의 演行方式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2.
- 이창식, 「단오문화유산과 문학콘텐츠」, 『강원민속학』제21집, 강원도민속학회, 2007.
- 이창식, 「강릉단오제 민요의 제의성과 유희성」, 『아시아강원민속』제16집,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02.
- 임혜정, 「근대 이후 일본의 민요 전승」, 『동양음악』제37집,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15.
- 川田壽, 『江戸風俗 東都歳時記をのむ(강호풍속 동도세시기를 읽고)』, 동경당출판, 2000.
- 이옥희, 「열두달을 노래한 민요의 연행 맥락과 시간 의식」, 『한국민요학』제30권, 한국민요학회, 2010.